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13년 6월조사 -

2013년 7월 3일
 주식회사 데이코쿠데이터뱅크 산업조사부
 http://www.tdb.co.jp/
 경기동향조사전용 HP http://www.tdb-di.com/

경기DI는 42.5, 전월 대비 0.5 포인트 감소로 7개월 만에 악화

~ 국내경기는 기대 선행으로 인한 개선 정체로 일시적인 답보 상태 ~

(조사대상 2만2,750사, 유효회답 1만157사, 회답률 44.6%, 조사개시 2002년 5월)

< 2013년 6월의 동향 : 답보 상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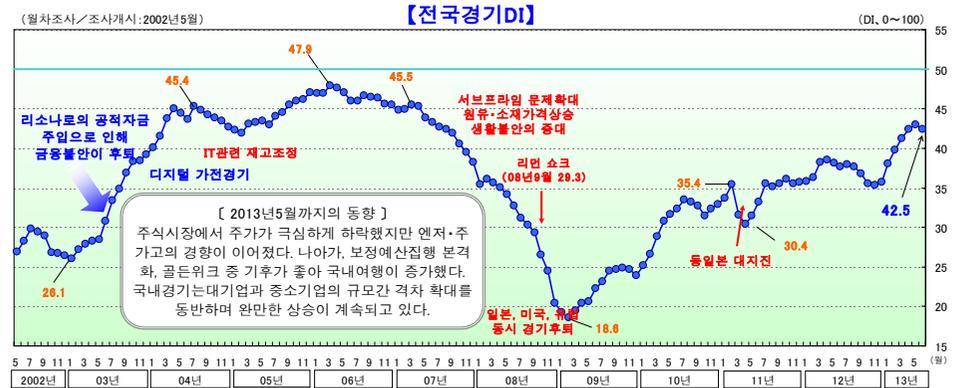
2013년 6월의 경기동향지수(경기DI : 0~100, 50가 판단분기점)은 전월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42.5로 7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이제까지 대기업을 중심으로 아베노믹스 효과로 인한 경기 상승이 이어졌지만, 6월 외국환시장에서는 환율이 1달러 93엔~100엔대로 변동되었고, 나아가 닛케이 평균주가가 6월 13일에는 최근 최고치보다 20%이상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또한 수입품을 통한 매입가격 상승으로 기업수익을 압박하는 환경이 강화되어 『부동산』 『소매』 『서비스』 등 내수관련을 중심으로 전체 10업계, 51업종 중 36업종이 악화되었다. 전체 10업계가 악화된 것은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3월 이래 2년 3개월만이다.

국내경기는 기대 선행으로 인한 개선 정체로 일시적인 답보 상태가 되었다.

조사결과 포인트

- 『제조』는 7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수입가격 상승으로 원가상승에 직면한 기업이 많고, 「펄프·종이·종이가공제품」 등 전체 12업종 중 7업종이 악화되었다. 재고철거가 서서히 진행되는 한편, 내수를 중심으로 설비투자 의욕 DI는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 『부동산』은 건축비나 수입재 가격의 급등이 이어지는 등 7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악화가 두드러져 기업 규모간 경향감의 차이가 크다.
- 『토카이』 『토호쿠』 등 10지역 중 8지역이 악화되었다. 『토호쿠』는 지진 후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농산물 출하량과 어획량 감소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매입원가가 높아진 『제조』나 연료가격의 급등에 직면한 『운송·창고』 등이 악화되었다.



< 향후 전망 : 원만하게 회복 >

전기·가스대기업 14사가 8월까지 요금을 일제히 5개월 연속 올리며 엔저로 인한 소재가격 상승도 진행되고 있어 판매가격으로 전가하지 않는 중소기업에서는 수익환경의 악화가 우려된다. 또한 7월에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 결과, 서서히 상승하는 장기금리 동향, 막바지 수요 후 반동 등 향후 불투명한 요소도 많다.

한편, 플러스 요소로는 여름철에 걸쳐 경기대책에 의한 공공사업 집행이 본격화되며, 소비세 인상 전 저금리 시 신축이나 리폼 등 주택 관련 막바지 수요, 엔저를 통한 수출 증가, 그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등 기대선행의 상황에서 실수요로의 이행이 기대된다. 또한 「일본재흥전략」(성장전략)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향후 실수요로 이어질지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기업마인드 악화가 일시적으로 그쳐 국내경기는 불투명감을 내포하면서도 원만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DI	2012년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1월	2월	
	37.6	37.9	37.7	36.8	35.5	35.3	35.7	38.0	39.8	
전월대비	▲ 0.6	0.3	▲ 0.2	▲ 0.9	▲ 1.3	▲ 0.2	0.4	2.3	1.8	
경기DI	2013년3월	4월	5월	6월	경기예측DI		1개월후	3개월후	6개월후	1년후
	41.3	42.4	43.0	42.5	42.6	42.9	43.6	46.2		
전월대비	1.5	1.1	0.6	▲ 0.5	2013년6월대비	0.1	0.4	1.1	3.7	

※1 : 색상이 없는 부분은 개선, 황색은 보합, 청색은 악화를 나타냄

※2 :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

업계별 : 2011년 3월 이래 2년 3개월 만에 전체 10업계가 악화

- 『금융』이 2개월 연속, 『도매』가 8개월 만, 『부동산』 『제조』 『운송·창고』 『서비스』가 7개월 만, 『건설』이 6개월 만에 악화되는 등 전체 10업계가 악화되었다. 전업계가 악화된 것은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3월 이래 2년 3개월 만이다. 중국의 개인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경제의 향후 우려도 있어 「중국진출」(42.8)기업의 경황감은 전월 대비 0.7 포인트 감소해 7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 『운송·창고』(41.7)… 전월 대비 0.9 포인트 감소. 환율의 극심한 변동으로 무역 거래량에 마이너스 영향이 있었고 식품업계에서의 저조한 화물이동, 운임시황의 저미, 단체여행 감소에 직면한 『운송·창고』는 7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 『제조』(40.0)… 전월 대비 0.3 포인트 감소. 7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설비투자 움직임이 둔해져 설비투자이익 DI(46.2, 동 0.4 포인트 감소)도 저하되었고 수입펄프 가격상승, 종이수요 감소가 이어진 「출판·인쇄」(31.9, 동 1.2 포인트 감소), 엔고 시 수주로 인한 원가 상승 등 수익환경이 어려워진 반면, 태양광발전 등 회복은 한정 분야에 그쳤기 때문에 재차 지진 전 수준(41.6)을 하회한 「전기기계제조」(40.2, 동 1.7 포인트 감소)등 『제조』는 12업계 중 7업종이 악화되었다.
- 『부동산』(47.7)… 전월 대비 1.5 포인트 감소. 7개월 만에 악화. 지진부흥이 이어진 『토호쿠』(50.0, 동 4.5 포인트 증가)는 개선되었지만 『미나미칸토』(50.1, 동 0.5 포인트 감소), 『킨키』(42.6, 동 2.9 포인트 감소), 『큐슈』(45.1, 동 2.7 포인트 감소)등 전국적으로 악화된 지역이 많아 10 지역 중 8 지역이 악화되었다. 건축비나 수입재가 급등하고 있고 「성악까지 기간이 소요된다」(미나미칸토)는 지적도 보였다. 특히 「대기업」(51.7, 동 0.3 포인트 감소)보다 「중소기업」(46.4, 동 1.9 포인트 감소)의 악화가 두드러져 기업 규모간 경황감 차이가 크다.
- 『건설』(47.5)… 전월 대비 0.1 포인트 감소. 소비세 증세나 금리상승경향, 인플레이션 예측 등 주택관련 막바지 수요가 있지만 지역별로는 개선과 악화로 경황감이 나뉜다. 보정예산집행에 의한 공공 공사의 조기발주가 진행된 『훗카이도』(51.1, 동 2.5 포인트 증가), 부흥수요가 있는 『토호쿠』(57.1, 동 0.3 포인트 증가)등 6 지역이 개선된 반면, 민간건설 공사가 증가하지 않는 『큐슈』(44.0, 동 1.2 포인트 감소), 공공 공사가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기술자 부족이 이어진 『미나미칸토』(47.2, 동 0.9 포인트 감소)등 4 지역이 악화되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훗카이도』가 20.6 포인트 증가, 『호쿠리쿠』가 증가, 『시코쿠』가 6.6 포인트 증가에 그쳐 최근 1년간 개선상황에 지역간 양극화가 보인다.

	12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재해 전 (2011년2월) 과 비교		
농·임·수산	34.8	34.5	35.8	35.2	33.3	33.7	34.9	36.0	36.8	35.7	35.4	39.7	39.5	▲ 0.2	2.1		
금융	38.0	37.7	37.7	37.5	35.7	36.1	36.2	41.3	42.4	41.9	44.7	44.4	44.0	▲ 0.4	9.8		
건설	36.2	37.2	38.0	38.1	38.6	39.0	38.7	41.9	43.8	45.3	46.4	47.6	47.5	▲ 0.1	19.4		
부동산	38.2	39.2	38.5	38.3	36.7	35.7	37.0	40.9	45.7	46.8	48.8	49.2	47.7	▲ 1.5	11.7		
제조	식품료품·서로제조	35.2	34.5	33.8	34.7	33.4	32.7	33.4	34.5	35.6	36.8	38.7	38.1	38.7	▲ 0.6	5.4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37.9	37.9	35.9	36.0	33.7	33.1	35.6	36.9	37.3	38.1	39.9	37.8	37.8	▲ 0.0	1.7	
	전채·가구·요업·토석제품제조	34.5	36.4	35.6	37.9	36.4	37.0	38.2	38.9	40.3	42.7	43.4	45.3	46.5	▲ 1.2	13.2	
	철근·중이·중이강판제조	34.2	33.6	34.7	32.7	30.2	30.8	31.1	33.3	33.0	36.0	37.0	38.2	34.9	▲ 3.3	1.7	
	출판·인쇄	29.3	28.5	29.6	28.6	29.1	29.2	28.3	29.6	31.4	32.8	32.8	33.1	31.9	▲ 1.2	4.7	
	차량제조	39.7	39.2	39.2	36.4	35.0	33.3	34.1	36.4	38.0	39.9	41.0	42.6	42.1	▲ 0.5	0.6	
	철강·비철금속·광업	37.7	38.0	37.2	35.6	32.1	31.9	32.6	35.5	37.6	38.5	39.7	40.0	39.8	▲ 0.2	0.9	
	기계제조	39.3	38.6	37.8	36.4	34.0	33.4	32.7	36.3	39.2	39.8	40.0	41.0	40.8	▲ 0.2	▲ 2.2	
	전기기계제조	37.6	38.2	37.2	34.8	32.6	31.8	32.8	35.8	38.2	38.4	40.1	41.9	40.2	▲ 1.7	▲ 1.4	
	수송용기계·기구제조	44.9	44.4	43.1	40.5	33.3	32.8	32.6	34.2	41.2	45.6	47.0	46.5	47.6	▲ 1.1	8.8	
	생활기계·의료기계·기구제조	39.5	39.7	39.4	36.2	33.5	32.5	32.4	33.6	36.5	36.7	39.9	39.3	38.7	▲ 0.6	▲ 6.3	
	기타 제조	30.8	33.5	32.1	32.2	29.2	30.8	31.0	31.3	34.8	35.4	35.6	33.3	33.7	▲ 0.4	3.3	
전체	37.0	37.0	36.5	35.4	33.1	32.6	33.1	35.3	37.4	38.6	39.7	40.3	40.0	▲ 0.3	2.2		
도매	식품료품도매	36.0	36.2	35.2	34.1	32.4	33.5	33.9	34.6	35.3	37.1	38.0	39.4	38.6	▲ 0.8	5.1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4.2	33.8	34.4	31.8	32.0	32.4	34.3	34.7	34.6	34.5	37.5	36.4	36.3	▲ 0.1	5.1	
	전채·가구·요업·토석제품도매	35.3	36.9	37.6	37.3	38.3	39.3	39.9	42.2	43.5	44.5	46.3	46.1	46.8	▲ 0.7	14.7	
	종이류·판공·서적도매	32.8	32.2	30.9	32.8	28.0	30.2	31.7	31.8	32.3	34.3	36.3	36.5	35.3	▲ 1.2	4.0	
	차량도매	38.0	38.5	37.6	36.7	35.6	35.1	34.6	35.9	36.1	38.5	39.7	41.4	40.2	▲ 1.2	1.4	
	생활장류도매	32.2	29.0	35.1	27.0	22.4	30.1	32.1	41.9	48.8	50.6	50.6	46.6	43.1	▲ 3.5	0.8	
	철강·비철금속·광업제품도매	35.7	35.2	35.7	33.6	32.6	31.6	34.0	37.3	38.2	40.2	38.7	39.9	39.0	▲ 0.9	1.9	
	기계·기구도매	38.8	38.8	37.9	36.9	34.6	33.7	34.1	36.8	38.8	41.0	42.1	41.9	40.4	▲ 1.5	1.8	
	기타 도매	36.1	36.0	35.5	34.1	32.8	32.8	32.2	34.0	35.3	37.1	38.1	39.3	38.8	▲ 0.5	4.3	
	전체	36.7	36.8	36.4	35.3	33.9	33.9	34.5	36.5	37.7	39.5	40.5	40.9	40.1	▲ 0.8	4.3	
	소매	식품료품소매	38.0	35.5	37.2	36.7	33.1	34.7	30.6	32.9	38.8	40.5	40.5	41.0	38.2	▲ 2.8	4.4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5.6	34.2	34.0	32.2	32.9	35.5	32.9	34.6	34.8	41.4	40.7	38.6	39.2	▲ 0.6	4.7
의약품·의료장비소매		43.1	45.3	45.8	43.8	42.3	44.4	47.7	49.4	45.7	44.9	44.7	50.7	44.0	▲ 6.7	2.0	
가구류소매		36.5	42.4	39.3	32.1	34.7	38.9	37.5	44.4	46.2	50.0	50.0	48.8	48.1	▲ 1.2	9.1	
가전·정보기기소매		38.2	38.9	41.1	40.4	33.8	33.3	34.1	39.5	38.7	41.7	44.1	42.1	47.5	▲ 5.4	8.9	
자동차·용 부품소매		46.6	46.0	40.8	41.5	36.9	31.8	32.1	41.2	42.9	49.4	43.4	47.2	43.8	▲ 3.4	12.4	
전문상소매		34.9	35.3	33.6	33.0	32.4	32.7	33.0	32.7	35.1	37.0	36.9	37.2	37.0	▲ 0.2	5.6	
각종상소매		36.7	39.7	37.1	36.3	35.8	35.3	35.5	38.4	40.5	42.8	45.5	46.9	46.2	▲ 0.7	10.1	
기타 소매		30.6	46.7	47.6	36.1	33.3	33.3	36.7	36.7	31.0	33.3	40.5	35.7	38.9	▲ 3.2	12.2	
전체		38.1	38.3	37.3	36.4	34.2	34.2	34.0	36.3	38.4	41.2	41.1	41.9	40.9	▲ 1.0	6.8	
운송·창고		38.1	39.2	39.5	37.6	36.7	35.3	36.9	38.0	39.5	40.6	41.5	42.6	41.7	▲ 0.9	5.1	
서비스		음식점	40.6	39.6	41.7	39.6	36.0	32.4	35.4	35.7	37.8	43.5	43.8	48.0	47.5	▲ 0.5	14.2
	전기통신	52.1	47.0	53.0	50.0	45.2	48.7	48.7	53.8	53.0	55.0	56.4	55.0	54.5	▲ 0.5	0.9	
	전기·가스·수도·열공급	45.8	40.0	35.4	41.7	37.0	42.6	37.5	43.8	45.8	40.5	48.1	48.1	51.7	▲ 3.6	5.9	
	리스·임대	43.6	44.2	43.6	43.8	43.3	43.7	45.2	45.3	48.4	49.9	49.6	50.7	50.7	▲ 0.0	15.7	
	판권·유통	41.7	42.4	42.2	41.7	38.1	40.0	37.2	38.4	40.1	45.8	48.2	49.1	48.3	▲ 0.8	20.2	
	오락서비스	35.5	33.3	36.1	35.0	37.4	36.2	36.7	38.5	38.5	40.6	41.0	38.5	40.5	▲ 2.0	8.3	
	방송	45.1	39.2	40.2	41.2	38.2	40.6	38.5	41.7	37.8	43.8	43.5	49.0	44.0	▲ 5.0	2.9	
	엔터테인먼트·경비·검사	39.4	38.1	38.9	39.7	37.7	38.4	37.6	40.7	44.0	43.3	43.3	44.8	43.7	▲ 1.1	6.4	
	광고관련	37.2	37.3	36.1	35.9	35.1	34.7	34.5	35.4	38.9	40.8	42.5	42.4	42.6	▲ 0.2	9.8	
	정보서비스	43.5	43.9	43.7	42.5	42.2	42.8	42.2	45.2	47.3	47.7	49.5	49.3	48.7	▲ 0.6	9.3	
	인재개발·소매	51.9	49.2	50.0	48.8	46.6	42.8	44.9	44.7	48.7	50.3	50.3	50.6	52.2	▲ 1.6	11.5	
	전문서비스	40.0	41.2	41.6	41.1	40.5	40.4	41.1	44.3	46.9	47.3	48.7	50.8	47.7	▲ 3.1	13.1	
	의료·복지·보건위생	42.4	43.5	43.8	43.4	41.8	41.1	40.8	45.3	45.7	48.0	49.0	48.8	47.3	▲ 1.5	10.5	
	교육서비스	38.2	41.0	43.2	39.3	42.3	40.1	38.3	46.8	46.8	45.3	48.0	47.0	46.7	▲ 0.3	4.6	
	기타 서비스	44.0	44.3	42.8	42.9	41.1	40.7	39.5	42.2	42.1	44.7	44.7	46.2	46.2	▲ 0.0	6.6	
	전체	41.9	42.0	42.1	41.5	40.6	40.5	40.5	43.0	45.0	46.2	47.3	47.9	47.2	▲ 0.7	10.4	
기타	35.8	40.0	35.6	38.7	37.4	36.0	36.2	36.7	33.8	35.7	42.3	41.5	41.4	▲ 0.1	10.1		
격차 (10개업계별『기타』 제외)	7.1	7.5	6.3	6.3	7.5	7.9	7.4	7.7	8.9	11.1	13.4	9.5	8.2	▲			
중국진출	40.3	40.5	38.9	37.4	35.7	35.0	35.5	37.5	39.2	40.3	42.3	43.5	42.8	▲ 0.7	1.8		

※ 색깔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되는 감소를 나타냄.

규모별 :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모두 악화

- 「대기업」(45.9, 전월 대비 0.5 포인트 감소), 「중소기업」(41.4, 동 0.6 포인트 감소), 「소규모기업」(41.1, 동 0.5 포인트 감소) 모두 악화되었다. 「대기업」은 8개월 만, 「중소기업」 「소규모기업」은 7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중소기업」의 감소폭이 「대기업」의 감소폭보다 크며 규모간 격차는 2개월 연속 과거 최대를 갱신했다. 「중소기업」으로 아베노믹스 효과 파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8개월 만에 전규모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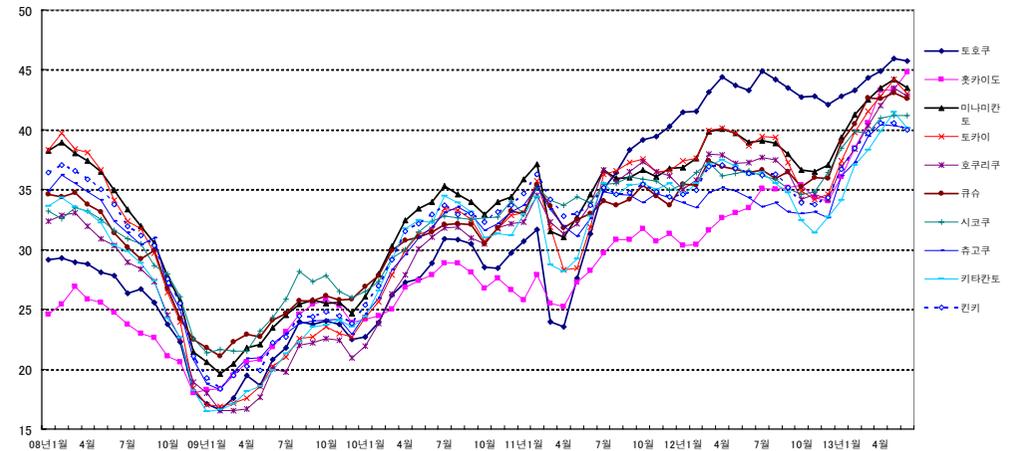
	12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재해 전 (2011년2월) 과 비교
대기업	40.3	40.8	40.3	39.5	38.2	38.4	38.7	41.0	42.9	44.2	45.3	46.4	45.9	▲ 0.5	9.0
중소기업	36.8	37.1	36.9	36.0	34.6	34.4	34.7	37.1	38.9	40.4	41.5	42.0	41.4	▲ 0.6	6.5
(그 중 소규모기업)	34.8	35.4	35.2	35.0	34.0	33.6	33.9	36.9	38.9	40.1	41.2	41.6	41.1	▲ 0.5	9.2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3.5	3.7	3.4	3.5	3.6	4.0	4.0	3.9	4.0	3.8	3.8	4.4	4.5		

※색깔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되는 감소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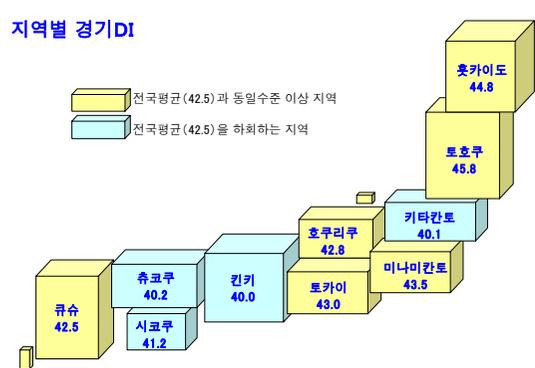
지역별 : 10 지역 중 8 지역이 악화

- 「**토카이**」(43.0)··· 전월 대비 1.2 포인트 감소. 7개월 만에 악화. 운임단가의 하락, 엔저로 인해 연료가격 상승한 『운송·창고』(47.9, 동 4.4 포인트 감소), 어획량 감소로 인해 재료 급등의 영향을 받은 『음식료품·사료제조』, 고급차 관련 제품이 증가한 가운데 일반차 제품의 움직임이 둔했던 「운송용 기계·기구제조」를 포함한 『제조』(42.3, 동 0.4 포인트 감소)등 10 업계 중 7 업계가 악화되었다.
- 「**토호쿠**」(45.8)··· 동 0.1 포인트 감소. 엔저로 인한 매입가격상승, 지진 후 인구감소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는 『소매』(41.3, 동 2.2 포인트 감소), 소재·에너지 원가상승, 5월의 기온·해수원이 낮아 농산물출하량·수산물어획량의 감소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제조』(40.4, 동 0.9 포인트 감소)등이 악화되었다. 다만 전국 순위에서는 22개월 연속 전국 10 지역 중 제1 위가 되었다.
- 「**홋카이도**」(44.8)··· 동 1.5 포인트 증가. 10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개선되었다. 공공 공사의 조기발주, 단독주택 건축이 상회하고 있는 『건설』(51.1, 동 2.5 포인트 증가), 『금융』(51.7, 동 9.1 포인트 증가)가 조사개시 이래 처음으로 50 을 상회했고 『농·림·수산』(50.0, 동 5.6 포인트 증가)와 『부동산』(54.4, 동 4.5 포인트 감소)을 포함해 10 업계 중 4 업계가 50 대가 되었다. 전국 순위도 과거 최고인 제 2 위로 상승했다(전월 : 제 5 위, 전년 동월 : 제 10 위).

지역별 그래프(2008년 1월부터 월간 추이)



지역별 경기DI



	12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재해 전 (2011년2월) 과 비교
홋카이도	33.5	35.1	35.0	35.2	35.3	34.3	34.0	36.1	38.4	40.5	43.2	43.3	44.8	1.5	16.9
도호쿠	43.3	44.9	44.2	43.5	42.7	42.8	42.1	42.8	43.3	44.3	44.9	45.9	45.8	▲ 0.1	14.1
기타칸토	36.2	36.4	35.5	34.8	32.4	31.4	32.7	34.1	37.1	38.3	39.9	41.4	40.1	▲ 1.3	5.7
미나미칸토	38.9	39.1	38.9	37.9	36.6	36.5	37.1	39.4	41.3	42.5	43.5	44.2	43.5	▲ 0.7	6.4
후쿠리쿠	37.3	37.7	37.5	36.5	34.2	34.6	34.2	36.9	38.4	40.3	42.0	43.5	42.8	▲ 0.7	8.3
토카이	38.7	39.4	39.3	37.3	34.9	34.2	34.6	37.4	39.8	41.5	42.8	44.2	43.0	▲ 1.2	7.3
킨키	36.3	36.2	36.3	35.2	33.9	33.8	34.3	36.7	38.5	39.7	40.6	40.5	40.0	▲ 0.5	3.7
츄고쿠	34.3	33.5	33.9	33.1	33.0	33.1	32.6	36.2	37.2	39.4	40.4	40.4	40.2	▲ 0.2	5.0
시코쿠	36.6	36.1	35.9	35.1	34.6	34.8	36.4	38.4	39.8	39.7	41.0	41.2	41.2	0.0	6.0
큐슈	36.4	36.6	36.0	36.5	35.2	36.0	36.0	39.0	40.5	42.6	42.6	43.0	42.5	▲ 0.5	7.1
격차	9.8	11.4	10.3	10.4	10.3	11.4	9.5	8.7	6.2	6.0	5.0	5.5	5.8		

※색깔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되는 감소를 나타냄.